

박 명 자
(전북 옥구군 보건소)

저는 전라북도 옥구군 서수 보건진료분소
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
원 박명자입니다.

저의 옥구군은 10개면 1출장소로
서 출장소에는 20여 도서(島嶼)를
포함하고 있는 인구 약 119,000명
의 항구도시 군산에 인접하고 있는
농업과 어업을 주로 하는 군입니다
그 중 농업을 주로 하는 한 면단위
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저는 내가 들
이었던 아니 셋, 아니 열이라도 될 수 있었으
면 오죽이나 좋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제 삶에 대해 이렇듯 절실하게 값어치를 느껴보
기는 처음입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가난과 싸우
며 살아온 우리 농촌 주민들이 저를 필요로 하
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의 요구는 제가 언제나 그들 곁에
머물고 움직이지 않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갈 때나 혹은 휴일의 제 시간을 낼 때도
그 순수한 마음을 저버린 것 같아 마음 한구석
에 죄스러움마저 느끼곤 합니다.

오늘은 누가 문 앞에서 되돌아 갔을까?

얼마나 고통스런 사람이 찾아왔다가 아픈 몸을
이끌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을까? 어느 병원엘
갈까 망설이다가 가벼운 주머니 사정 때문에 고
통을 참으며 되돌아 가지 않았을까?

생각은 꼬리를 물고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아,
모처럼의 휴일도 부담스러운 채 지나고 맙니다.

“마을 건강사업” 어느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아마 생소한 어휘일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야
말로 새마을사업과 병행해서 일보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 국민 모두의 염원사업일 것입니다.
새마을 사업하면 지붕을 개량하고 농토를 확장하
고 마을 안길을 넓히고 부설개량, 변소개량, 주
택개량, 소독증대 등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이 없
을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 섬에도, 산을 넘어 벽
촌에도 새마을사업이 도착한지 오래입니다. 그
러나 이 모든것이 보건사업 즉 건강을 유지 증
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는 분이 빛이나 될까요?

인간이면 누구나 무엇보라도 건
강을 원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
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시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
겠습니까? 모든 것이 건강이 있고,
난 뒤의 이야기 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몸담고 있는 마을건
강사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글자 그대로 온 마을이 모든 면에서 건강하자
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험있는 간호원을
1년 동안 특수교육을 시켜 한국보건개발연구원
법을 뒷받침하여 벽지에 내어 보내 과거의 보건
사업 즉 예방이나 모자보건사업, 가족계획, 결
핵관리, 전염병관리, 학교보건, 환경위생, 보건
교육 등을 더욱 효과적으로 합과 동시에 경미한
환자의 일차진료를 포함시켜 저렴양질의 의료서
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
니다.

의사 아닌 사람이 환자치료를 할 수 있는 것
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약방이나 무당등을 찾는 경미한 환자를 한정된 약품을 가지고 치료할 뿐이차진료를 요하는 사람은 지체없이 병원으로 후송하고 있는 점입니다. 지금은 시범기간으로 강원도 홍천군, 경북 군위군 그리고 저의 옥구군에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골에도 경제사정이 좋아져 의식주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이 옛이야기 처럼 멀어져가고 집모양이 좋아지고 옷모양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료문제만은 크나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주민 거의가 일단 아프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약국도 아닌 시골 약방. 그곳 약으로 2-3일간 견디다 다음에 찾는 곳이 시내 약국 아니면 돌파리요, 견딜 수 없이 생명에 위험신호가 와야 비로소 병, 의원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그토록 병원가길 꺼려 하는가? 그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높은 수가 때문이요 두번째는 교통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동을 주로 하는 그들이 애기의 아픔과 하루의 노동량을 저울질하는 것은 보통이려니와 어린애 보다는 짐승의 아픔이나 일을 중요시 하는 사람도 우리가 늘 말만큼 많은 숫자입니다.

어느날 이른 아침 어느 부인이 5세쯤 되어 보이는 어린애를 데리고 오더니 손에 돈 몇백원을 쥐여 진료소 안으로 떠밀 듯 밀면서 “주사 맞고 가져라”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길래 “아주머니”하고 불렀습니다. “새기가 어떻게 아파요?” 하고 물으니 열이 많고 보챌다면서 남의 집 일을 가야 하니 치료 좀 해서 보내라요 하고는 종종걸음 치는 것을 보고서는 너무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아프지 않아도 얼마 떨어지기가 싫을텐데 아픈 아이를 내동댕이 치듯 떠밀고 가는 엄마, 그렇듯 자라야 하는 어린 생명, 하루 빨리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들은 없어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서 발을 들여 놓은지도 2년. 그

동안 1년간의 장기교육을 마치고 78년 7월 1일부터 현지 근무중인데 처음엔 무척 염려스럽게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실습을 마치고 현지에 들어간 분들이 사업이 잘 안된다는 소식이 고 거의 마을마다에 음으로 양으로 돌파리님들이 군림하고 있어 산넘어 산처럼 우리가 갈길은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장이나 학생들을 통해서 빨리 마을마다에 연락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천문의의 말은 안 믿으면서도 비록 아무런 지식도 없는 자기 마을이나 자기 이웃사람들의 말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도 믿으려 드는 시골 주민들의 생활습관을 생각하곤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서둘지 말고 차분히 하나에서 부터 시작하여 어떠한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뿌리를 내리려고.....

시내에서 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을 이곳으로 전학을 시키고 식구들이 다 잠을 잘 수도 없는 작은 방에 보따리 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낮에 아프면 차라도 있지만 밤에 아프면 날새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려면

의사 아닌 사람이 환자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일겁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해결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골학교에 가지 않겠다던 큰 아이를 며칠 동안 설득을 시켜 전학을 시키고 잠초가 우겨지고 거미들의 낙원으로 되어 있는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이사 도중 차가 고장이 나서 밤 9시경에 도착이 되어 짐을 풀고 보니 문은 갈기갈기 찢기고 방바닥은 세면 바닥이었습니다. 불빛따라 모여드는 모기며 벌구, 각종 벌레들은 서있을 수가 없도록 덤비는데 배고프다고 칭얼대는 어린 것들을 데리고 식당을 찾아가니 전부 일과가 끝났고 가게를 찾아 갔더니 빵은 전부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부러진 짐 속에서 끈포를 찾기도 힘이 들고 타면마저도 끓일 수가 없어 과일 몇 개로 저녁을 때우고 군보진소에서 사다놓

은 장판을 깔고 모기장을 꺼내 치고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불편한 잠자리, 배고픔에도 불평없이 엄마 따라와 철없이 잠든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노라니 밀렸든 피로에 슬픔이 우욱 밀려와 가슴이 메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성파가 나타나지 않는 보건사업의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피땀 흘려 일해 왔을까 생각하며 일년동안 지루하기도 했고, 또 많은 설제도 했던 교육기간이 끝나고 내가 뛰어야 할 시점에 왔으니 시작부터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 보리라 더욱 더 다짐을 하면서 하얀 밤을 아이들을 지키며 새웠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어려운 난관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대로 돈 가지고 가서 필요한 것 구입해다 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준비하는데도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진료소를 수리하고 기구를 들여오고 약품을 구입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잠초를 뽑고……

하루하루가 화살이 날아가듯 지나갔습니다. 거의 웬만큼 준비가 끝나고 나니 이제 상담자나 환자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무로도 아닌 데 자꾸 오라고 할 수도 없는 일, 현지에 가면 지역을 친단하고 유지나 지도자를 찾고……하며 귀가 아프도록 사업방법을 강의해 주시던 강사님들을 생각하면서도 나는 그 말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민 두두들 지도자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족이 있고 또 그들 이웃이 있을 겁니다. 모이는 기회가 많고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시골 주민들의 입을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환자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보았습니다. 체온, 혈압을 측정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관찰을 하고, 피부병 환자일지라도 청진을 했습니다.

병원엘 자주 안가던 주민들은 하나같이 진찰을 잘 해 준다고 좋아했습니다. 물론 지도자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치료받지 않은

지도자보다는 치료받고 간 주민의 이야기를 더욱 믿을 것 같았습니다. 내 계획은 맞아 들어 갔습니다. 찾아오는 사람의 80% 이상이 치료받고 간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왔다고 꼭 말해 주곤 했습니다. 그러던 그 사람을 통해서 먼저 다녀간 사람의 경과도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달에 환자가 130명, 그 다음달엔 250명, 그리고 그 다음달엔 300명을 넘었습니다. 한번 다녀간 사람은 거의 다시 찾아오고 그의 가족 그리고 그 이웃, 이런 식으로 소문은 꼬리를 달고 퍼져나가 환자수는 날로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환자수가 늘다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휴일도 없고 밤과 낮이 없이 자기를 편리한대로 오다보니 매일을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서 청소, 소독부터 시작하여 진찰을 하고 투약처치를 하고 장부정리, 공문처리, 약품요구, 꺼즈를 접고 스포지를 만들고 보고서 작성, 회의 참석 등 많은 업무량에다 어쩐다 응급환자나 분만환자가 있어 밤을 새우고 나면 다음날 근무하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었습니다. 이태산 안되겠구나 싶어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근무시간 안에만 환자를 보고 시간외에는 응급환자만 보겠노라고 입이 아프도록 몇 개월을 설득한 결과 이제 근무시간외나 휴일에 찾아오는 일반환자 수는 거의 줄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뿐 두엇이든 하던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자 한 사람이 찾아오면 체온, 혈압을 측정하고 문진과 청진, 투약과 주사처치, 기록까지 끝내려면 빨라야 30분, 경우에 따라 봉합을 하든지 수액을 주입해야 할 환자는 훨씬 더 시간이 걸립니다. 다 접수된 상태에서 처방만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진료소 문을 들어설 때 부터 보낼때까지 혼자 해야 되므로 하루에 10명 정도의 환자면 거의 일과가 끝납니다. 환자수가 15명을 넘는 날에는 점심시간을 단축해야 되고 6시 퇴근시간은 생각도 못하고 7시 8시가 되어 버립니다. 또 환자가 한꺼번에 와서 대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일은 할 수도 없습니

특집 : 새마을 건강사업

다. 어쩌다 환자수가 적은 날에는 재료준비며 빌린 서류정리에 시간을 할애하지만, 하루 10여명의 환자는 보통이고 최고 25명까지 본 적이 있습니다.

행정요원이든, 진료보조원이든 한사람만 더 같이 근무할 수 있으면 조금은 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항상 있습니다.

일에 쫓기던 어느날, 그것도 밤에 술에 만취된 40세 가량의 남자분이 이마에 상처를 심하게 입고 왔습니다. 여자가 치료하는 것이 가소롭다는 듯이 농담을 하고 치료하는 것을 아는체 하였지만 알콜로 인해 확장된 혈관의 심한 출혈을 북북히 정성스레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 환자가 다시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 밤에 택시를 타고 시내 병원에 가서 치료한 것을 확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병원 의사 이야기가 어

 더서 했는지
 병합을 잘 했
 다고 하더라
 고 말하면서
 이젠 이곳이
 치료비도 싸
 고 하니가 계속
 치료를 받
 겠다는 얘깁
 니다.

나은 뒤에도 2~3일을 더 찾아와 귀찮은 환자였었습니다만 그 후론 그 집안 사람들도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곤 합니다.

한번은 어느 젊은 부인이 애기를 데리고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소록이 채 끝나기드 전이라 잠깐만 기다리라 하고, 보논데서 화열소독을 하고 자불소독된 주사기며 forsep 등을 tray에 담는배 그 분이 유심히 보더니 아무말 없이 치료를 받고 갔습니다. 애기가 넘어져 이마에 열상을 입고 그 마을 돌파리한테서 치료를 했는데 잘 아물지 않은 것 같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상처

가 감염되어 있길래 실을 뽑고 치료를 해서 보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먼 번두리에 있는 학교 선생부인이었습니다. 그런 후론 그 마을에서 계속 환자가 찾아와서 그분 이야길 했습니다.

빠스를 타고 와야 하는 먼 거리인데다 가까운 곳에 수련의사도 있는데 환자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역시 자기 이웃의 신뢰도는 높은 것 같습니다. 그 뒤 우리 보건요원이 그곳에 예방 접종차 갔더니 주민들 어른이 시내보다 환자를 깨끗이 보아준다고 하더라면서 어떻게 하면 환자를 깨끗이 보는거냐고 해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이 치료받으러 일단 찾아오면 치료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다, 방문을 열어보고 부엌을 둘러보고 주위 환경을 둘러봅니다. 그러곤 옛날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여자가 있으니 집이 깨끗하다느니 한마디씩 하길 좋아합니다. 시골 주민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무척 견디기 힘

든 기본 나쁜
 일로 생각될
 것입니다. 그
 러나 그들은
 그것이 실례
 되는 일이라
 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
 습니다. 그리
 고 마을에 들
 아가면 화제

거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뒤에 찾아오는 사람이, 방이 하나였는데 둘이 되고 부엌을 새로 만들었다느니, 그렇게 해 놓으니 역시 좋다고 하면서 또 둘러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아이를 데리고 혼자 살림을 하는 내가 시간을 벌기 위해 새벽같이 찾아오는 그들에게 깨끗한 방, 깨끗한 부엌, 그리고 진료실을 보여주기 위해선 발을 동동 구르며 뛰어야 했습니다.

의사(시골 주민들은 주사기를 잡든지 치료를 하는 사람은 모두 의사로 통합니다) 집도 어쩌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였죠. 그들에게 말로 여러번 하는 것 보다 실지로 시범을 보이는 것이 산 보건교육이요, 새마을사업인 것 같았습니다. 보기가 딱했던지 옆집에 사시는 이장께서는 거의 매일 넓다란 마당을 쓸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부탁하기가 무섭게 모든 것을 도와 주십니다.

애기 치료 하러 온 아주머니들이 집을 둘러보다 빨래가 밀려 있으면 빨아주고 싶다고 우물이 어디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남의 가정집에서 물을 길어다 써야하는 제 형편으로는 그런 도움도 받을 수가 없지만 그 마음만으로도 저는 가슴 저려오는 고마움을 느끼곤 합니다. 진실로 나를 도와주려는 마음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군수님께서 우물을 파 주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지만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느날이었습니다. 아주 어려 보이는 여자분이 배가 부른데다 또 등에 애기를 업고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임신진찰 받으러 온 줄 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애기가 아파서 시내 모 소아과에 5일간이나 다녔는데 낫지는 않고 돈만 만여원이 넘게 들고 애기는 자꾸 보채기만 해서 걱정을 하던 차에, 이곳에서 잘 본

았습니다. 그 뒤 그 애기는 치료를 받고 완치됐고 그 마을에서는 환자가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새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논 농사가 주업으로 되어 있는 이곳에서는 농약 중독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때 환자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농사철엔 거의 매일 전화 문의가 오고 또 환자가 찾아오곤 합니다. 진료 시작하고 며칠만에 있었던 일로 기억됩니다. 해가 서산으로 쉼뉘뉘 떨어가고 태양열에 달구어진 지구가 조금씩 식어가는 시간 리어카에 사람을 싣고 들어왔습니다. 팔다리에 마비가 오고 대소변을 조절 못하는 환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남의집 고용살이를 하는데 하루 온종일 농약살포를 했다고 합니다. 교육기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실습을 해서 어느정도 자신감도 있었으나 그래도 혼자서 치료하려니 슬며시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무 내색도 않고 아이들 밥도 주지 못한 채 환자 곁에 앉아서 30분마다 혈압을 재고 맥박 호흡을 관찰하면서 주사처치를 하며 몇 시간이 지난 밤 10시쯤 되니 환자 상태가 좋아서 안심하지 말고 계속 관

찰하도록 일려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제야 아이

들 생각이 들어 방에 가보니 밥도 굶은 채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렇게나 쓰러져 잠든 아이들을 잘 눕히고 죽은 듯이 조용해진 집에서 갑자기 우욱 밀려오는 피로를 느끼면서도 이것이 생의 보람이려니 생각하니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그날따라 형광등 불빛은 유난히도 밝아 보였고 나도 어둠을 밝히는 인간의 불빛이 되리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몸도 피곤했지만 행여 무슨 안락이 오나 전화에 신경을 쓰느라 밤새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환자는 후유증 없이 회복이 됐고 그 마을에는 농약중독자를 치료했다고 소문이 나서 진료소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따라 불빛은 유난히도 밝아 보였고 나도 어둠을 밝히는 인간의 불빛이 되리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고 가보라고 해서 왔다고 합니다. 마을 속으로 소아과 전문의 한테서 치료를 받다 이곳으로 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슬며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찾아온 환자니까 차례로 병력을 문진하고 신체검사를 하다보니 신장염이 의심되어 소변검사를 했더니 단백이 상당량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감기라고 이야기 했다길래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기고 해서 일단 하루분 투약을 하고 다시 오도록 일했습니다. 다음날 생각한대로 애기가 보채지 않고 잘 논다고 좋아하면서 그 마을에서 두 명의 다른 환자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다음날은 또 다른 세명의 환자를..... 이런 식으로 한 10여일간은 그 마을 환자가 떨어지질 않

특집 : 새마을 건강사업

추수가 시작되기 조금전 넓다란 돌이 황금빛으로 눈부시던 9월 어느날 아침 일찍 분만환자가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논길 발길을 걸어 이슬에 채이면서 다녀 왔습니다. 배반이상이 있어 약간 힘이 들었지만 그런대로 출혈도 없고 해서 오후 1시쯤 집에 와서 막 점심을 먹으려니 또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전 산전진찰을 받고 간 사람인 데 진통이 온다고 연락이 와서 이곳 지리에 아직 익숙치 못해 베리러 오라고 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30세의 경산부인데 10년 전에 첫 아이를 낳고 이번이 두번째였는데 재혼한 사이라 이곳에서는 처음 아이인 셈입니다.

애기 아빠될 분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거리가 멀다고 타라고 하길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차라리 집 자전거면 그래도 낫겠는데 신사용 자전거의 작은 안장에 몸을 얹고 털털거리는 시골 논길을 가려니 보통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역시 시골에서나 맛볼 수 있는 고충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자전거가 나와 있습니다. 2~3시간 버스를 기다릴 수 없어 고통스럽게 가서 보니 경부는 아직 조금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되겠다고 하니까 제발 가지 말라고 간곡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남자는 남의 집살이를 하고 돌봐줄 사람도 별로 없는 구차한 집이라 더욱 잘 봐줘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집엔 늦겠다고 연락을 하고 진행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초산부보다도 더욱 진행이 늦었습니다. 오후 4시쯤 되어서는 퇴근시간이 되기 전에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마을에 있는 전화로 보건소에 연락을 했습니다. 소장님께 마을에 나와 있는 데 아직 이상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진행이 약간 늦으니 구급차를 좀 보내 주십시오…… 그랬더니 꽤히 승낙을 해주셨고 또 손수 나와 주셨습니다. 이상이라고 생각되면 차에 싣고 병원으로 옮기면 되니까 마을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진행이 늦을 뿐 이상은 없었고 밤 10시가 지나서 건강한 남자애를 낳았습니다. 물론 이상이라고 생각되면 지체없이 병원으로 보내지만 이상은 없었고 돈 때문에 염려하는 그들을 미리

부터 옮기자는 이야기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시간외에 근무하면 월급 더 주느냐, 퇴직금도 없는 상용잡급이라고 빈정대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그런 사람에게 이런 시간에 맞볼 수 있는 즐거움을 조금이라도 나눠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런 이야기는 못하겠지요. 사명감!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사명감이 절대로 필요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료소에 가면 그곳에서 안되는 일이라도 끝까지 책임을 져준다는 것을 실지로 주민에게 알리고 싶었구요. 40세에 첫 아들을 얻어 좋아하는 애기아빠 얼굴을 생각하며 나는 밤이 늦은 것도 잊고 그저 기쁘기만 했습니다.

요즘은 군산시에서도 이리시에서도 단골환자가 생겼습니다. 군산에 사는 23세의 말 못하는 아가씨는 내가 처음 갔을 때 그곳에 살다 이사를 갔는데 갑상선 수술을 받은 저혈당증 환자입니다. 손발이 저러오고 현기증이 나면 포도당을 맞아야 얼마씩 전지는 데 혈판이 가늘어 주사 놓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정성을 들여 놓아주었더니 군산에 간 뒤 몇군데 병원에 다니면서 맞다 지금은 계속 이곳으로 찾아옵니다.

여러군데 다녀왔는데 이곳에서 제일 잘 놓아준다고 찾아오다가 한번은 버스 속에서 현기증이 나서 넘어졌다고 얼굴과 다리에 상처를 입고 왔습니다. 시내에서 맞으라고 일러서 보냈는데 버스도 한시간 가까이 걸리는 이곳까지 다시 찾아오면서 상처투성이인 모습을 보며 나를 믿고 찾아와 준것이 여간 고맙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자기 몸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도 생각하며 내가 좋아하는 '더킨슨'의 시 한구절을 되뇌어 보았죠. "내가 만일 애타는 한 가슴을 달랠 수 있다면 정녕 나의 삶은 헛되지 않으리"라고……

우리가 시골에 가면 놀라울 정도로 만성병 환자가 많습니다. 특히 중노동으로 일생을 살아온 그들에게 신경통은 부산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그들은 거의가 스테로이드 제제를 복용해 오고 있어 먹으면 낫고 안먹으면 아프다고 호소

해 오는 그들에게 저는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계속 복용했을 때 오는 무서운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물리요법과 영양섭취에 대한 교육을 입이 아프도록 했더니 처음엔 약도 안주고 주사도 안 놓아 준다고 불평을 하더니 요즘은 옴은 소리만 한다하며 검은 것이 희다고 해도 믿기운다고 모든 가정사까지 상의하러 옵니다. 그리고 일반 환자들한테도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가족계획 대상자가 아닐까? 혹 결핵을 앓고 있지는 않나, 어린아이들은 제대로 예방접종을 시켰는지 묻고 또 상담을 계속 합니다.

가족계획 사업을 시작한지 창산이 두 번 변할 만큼 세월이 지났는데도 자기가 무슨 방법을 해야 할 것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저는 이곳에서 직접 루프시술을 해주고 또 먹는 피임약과 콘돔을 갖다 놓고 대상이 있을 때마다 공급하고 있으며 결핵이 의심되는 환자에게는 “언제 X-Ray를 찍었습니까? 객담검사를 해 보셨습니까?” 묻고 또 물어 객담통을 주고 X-Ray를 찍도록 권유해서 결핵환자도 여럿명 등록시켰습니다.

또 양호교사도 없는 학교보건소에도 무관심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방접종, 신체검사 보건교육 등을 실시해 주고 있으며 수시로 일어나는 외상치료나 응급처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브리페기가 한창인 어느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손이 모자란 농촌에서 철부지들이 브리를 베다 다리를 뺀 것이죠. 보내라고 해서 보니 10cm나 열상을 입었길래 봉합을 하고 있는 데 채 끝나기도 전에 아이들이 피투성이가 된채 줄을 이었습니다. 손가락, 손등, 다리 등을 마구 베어와 진료소 내가 피비린내로 꼭 찼습니다. 차례 차례 치료를 해서 보내고 나니 무언가 가슴뿌듯해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그 정도 상처 때문에 몇십리 차를 타고 나가치도 않고 지혈을 시키면 두었을 테고 커다란 상처가 흉상처럼 오래도록 그들한테 남아있었을 때니까요. 또한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던 학교에 연락을 하여 앓고 있는 아이를, 등교정지 시키도록 하여

전염을 최대한으로 막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우두가 만연하여 학교마다 문제가 되고 있을 때도 제가 있는 곳에서는 불과 몇명이 앓았을 뿐입니다.

사업 시작한지가 오래지 않아 아직 가장 가장 걸음마를 하는 정도지만 머지않아 활달음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보건요원 한 사람이 저와같이 있지만 곧 세 사람을 다 옮겨 철저한 의료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오랫동안 우리가 이론으로 알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보건사업이 마을 건강사업을 발판삼아 체계도에 오를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정 기록부를 작성하여 각 가정의 질병상태, 위생상태까지 세밀히 기록하고 계획에 의해 모든 사업을 하게 되도록 정확한 통제가 나오게 될 것이며 정확한 통계에 의한 계획은 역시 차질이나 소모도 없을 것입니다.

가장 알기 쉬운 예로 예방접종 하나를 보더라도 한번만 맞아도 될 것을 여러번 맞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언제 실시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지나쳐 버리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저의 관에서는 가정기록부에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되는 어린이 명단을 엠프 방송하든지 혹은 나오지 못한 어린이는 가정방문을 하여 누락자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으며 같은 예방접종을 필요없이 하는 일도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약의 소모가 적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얼마의 무지로 죄없이 두번 세번 주사바늘의 아픔을 당해야 하는 애기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바람직한 일입니까?

특히 마을마다에 어머니회원들로 마을건강원을 위촉하여 교육을 시키고 5대 부녀사업 즉 한 가정 한통장 갖기, 한가정 들 넣기, 가정생활의 과학화, 자연보호 실천, 충효운동의 생활화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을 통해 부락내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주민들 스스로 직접 보건사업에 참여하도록 소모약 등을 주어 우물소독이나 분무소독을 직접 정기적으로 요일을 정해 놓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특집 : 새마을 건강사업

에서도 새마을 사업에 앞장선 50개 선도 마을을 선정하여 기생충 없는 마을, 결핵없는 마을, 전염병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전 부락민을 대상으로 X-Ray 촬영을 하여 환자를 발견하여 치료해 주고 검변을 실시하여 투약하고 예방접종과 소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료소내에 영양개선의 집을 두어 영양 교육을 실시로 실시하고 농원기 탁아소 운영까지 계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바람직한 사업입니까?

이곳에 와서 안 사실이지만 가까스로 보내어진 수련의 들은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지역을

케 알기도

전에 훌쩍 철새처럼 떠나 버리니 수민들에게 주어지는 의료서비스는 극히 적은 양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 군관내 2개소에 근무중인 네 그곳은 진료소 행정요원과 진료보조원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월부터 5월까지의 사업실적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혼자서 근무하는 제가 1,429명을 보았고 다른 진료소에서는 689명 또 다른 진료소에서는 242명의 통계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을 줄 압니다.

이런 현상에 우리 마을 건강사업은 오래도록 호롱불로 밝히든 밤을 전깃불로 장식한 듯 주민들에게 빛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지 오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환갑잔치를 하세요” “남자가 못하는 일 여자가 하는구먼” “관약 가게되던 년장이 책임져요” “남자 의사 필요 없으니 오래 있어줘요” 하는 이야길 거의 매일 듣고 있습니다. 낡은 보재기에 계란 한줄, 채소 한달걀을 정성껏 싸다주는 그 순수한 인경, 출장길에 나서던 논두렁 밭두렁에서 일손을 멈추고 피로도 잊은 듯 활짝 웃으며 흔들려 주는 손길에 날로 정이 들어갈 뿐입니다.

저는 사업이 어느 정도 체도에 오른 뒤부터 기

관장 회의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을 알고 타기관과의 협조도 필요할 것 같아서였죠. 홍일점 기관장이라고 대우도 좋고 협조도 잘해 주어 일하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보건요원이 기관방문을 해야 할 경우 미리 전화연락만 해 놓아도 적극 협조를 해주어 시간절약도 됩니다. 이구동성으로 “과거에는 있으나마나 한 보건소였는데 이제 의젓한 기관이야”하는 분도 계십니다.

나무 한포기 없는 곳에 나무를 심었고 울타리도 없던 곳에 담을 쌓아 이제 타기관과 어깨를

간호원이 병원 안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일하던 시

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나란히 하여 면사무소, 지서, 학교 이상으로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될 보건지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옥주군 군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 땅에 이 사업을 심어야 된다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새마을사업 경가차 이곳에 오셔서 기관장 및 마을지도자를 한테 “마을 건강기”를 가르키며 “병원 속에 새마을이 있잖아. 이것이 바로 새마을 사업이야” 하시면서 협조하도록 부탁하시고는 넓은 공터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주시기로 약속하시더니 우선 그네와 캐이소오를 설치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천진스런 소음이 진료소 뜰에 가득합니다. 간호원이 병원안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일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행정가가 되고 정치가가 되고 때론 교육자나 지도자가 되어야 하며 또한 모든 사람의 다정한 상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수정되는 순간부터 이 세상을 하직하는 순간까지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고 주민들의 여론도 좋은 상태에서 사업에 성공을 기대해 볼 만큼 자신도 생겼습니다.

시골이 싫다던,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도 저의 학년에서 1등을 했고 국민학교에 다니는 아들은 최우수상을 타옵니다. 공해가 적은 시골에서 점으스레 탄 채 마음껏 뛰고 노는 아이들을 보던 서 역시 시골로 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의 간호수준을 받아들여 세계에서 인정받는 양질의 간호인력을, 의료혜택에 배고픈 우리 농어촌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법

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마음 건강사업을 통해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집을 비웠다고 나를 원망하며 아픈 몸을 이끌고 문 앞에서 되 돌아갈 주민에게 죄스러움을 느끼며 하루 빨리 우리나라 모두에게 균등한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뭇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달의 수증간행물

「간호학회지」 제 9권 1호(79.6월호) 대한간호학회
 「과학과 기술」 제12권 6호, 7호(6월호, 7월호) 한국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남북의료기」 통권113호(9월호) 남북의료기(주)
 「녹십자의보」 제 7권 3호(5,6월호) Korea Green Cross Corporation
 「대한병원협회지」 제 8권 7호(7월호)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협회 분과학회 협의회 약사」 1979, 대한의학협회
 「동아의보」 통권119, 120호(7월호, 8월호) 동아제약(주)
 「전세계보」 제26권 7호, 8호(7월호, 8월호) 대한결핵협회
 「월간간호」 통권 28,29호(7월호, 8월호) 월간간호사
 「의료보림」 통권 12,13, 14호(6월호, 7월호, 8월호) 전국의료보림협의회
 「인간과학」 제 3권 6,7호(6월호, 7월호) 성심중앙유지재단
 「적십자병원지」 제 6권 제 1호(7월호) 대한적십자사

「정신간호보수교육교재」 79.8 보건사회부
 「看護技術」 제25권 9,10,11호(7월호, 8월호, 9월호) 日本
 Assignment Children, 79 Spring, UNICEF
 ICN. Vol. 26. No. 3. (5,6월호)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 Vol. 5. No. 1(3월호) Family Planning International Assistance Division
 Korean Medical Abstracts, Vol. 9. No. 2. KORSTIC
 Members handbook, 1979, Royal College of Nursing
 Nursing 79, Vol 9. No. 5,6 (5월호, 6월호)
 Population Reports, 79.5월
 The Canadian Nurse, Vol. 75. No. 6,7 (6월호, 7,8월합병호)
 The Hong Kong Nursing Journal, 二十六期(5월호) 香港護士會
 World Health (5월호) WHO

